

이태원에 '반야심경' 이 울려 퍼질 때... 부처 헨섬~

(put your hands up)

Young 108회, '옴-BIP(Buddhist Identity Party)' 현장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 심반야바라밀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넘쳐나는 이태원 거리. 8월 27일 오후 7시 이태원 북판에 자리한 한 지하 클럽에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어두운 지하, 화려한 조명과 한껏 멋을 부린 젊은 남녀들. 언뜻 보기엔 어느 클럽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몸을 내맡기고 있는 음악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독특하다.

가만히 음악을 들어보니 리듬은 힙합인데 노래가사는 '반야심경'이다. 어느 법회나 산사에서 울려 퍼져야 할 (반야심경)의 독경 소리가 랩패에 의해 흥겨운 힙합으로 편곡돼 불리지고 있었다.

〈반야심경〉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 이 클럽에서는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띈다. 이런 이색 광경이 벌어진 것은 다름 아닌 불교 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단체인 Young 108회(회장 조재연, 이하 영108회)의 '옴-BIP(Buddhist Identity Party)' 때문이다.

영108회는 젊은 불자들을 위한 색다른 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영108회 조재연 회장은 "영108회가 올해 2월 설립된 이후, 불교적 수행, 만남, 나눔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활동 중이다. 이번 '옴-BIP' 행사는 '만남'을 실현하기 위한 장이다"라며 "지금까지 많은 젊은 불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았다.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대불원, 안국선원 등 다양한 사찰의 젊은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남의 자리를 갖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이번 파티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문화국장 묘청 스님, 불교

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 지혜로운여성 남혜정 이사 등을 비롯한 영108회 200여 회원들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태어나서 클럽이라는 곳을 처음 와 봤다. 우선 이번 행사를 진심을 축하한다"라며 "불교는 '증득'이다. 그 사실을 체합하고 알아 가면 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당부하겠다. 첫째 자기를 속이지 말라. 둘째, 화내지 말라. 셋째 배풀러 살아야 한다. 이를 반드시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반드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항상 있는 그 자리가 극락이므로, 오늘은 나도 적당히 편곡돼 불리지고 있었다."

힙합음악이 된 '반야심경' 일반인들도 귀가 솔깃해져 크리스마스처럼, 부처님오신날도 신나게 놀 수 있음을 보여주고파

즐길 것이다"라며 "영108인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을 진심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영108인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파티에는 음악은 물론 사소한 소품들까지 불교적인 색채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반야심경은 음악을 좋아하는 클럽 매니아들한테 더욱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영108회의 윤효진 씨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반야심경을 편곡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는 영108회 회원들을 포함해 200명 정도 참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의외로 일반인들도 지나가다 음악을 듣고 파티에 많이



Young 108회가 이태원에 자리한 한 클럽에서 '옴-BIP(Buddhist Identity Party)'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오른쪽 두 번째), 문화부장 진명 스님(오른쪽 네 번째), 문화국장 묘청 스님(왼쪽 세 번째),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왼쪽 두 번째), 지혜로운여성 남혜정 이사(왼쪽 첫째) 등이 참석해 파티를 축하하고 있다.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일반인으로 참가한 이은지 씨는 "친구랑 지나가다 포스터를 보고 재밌을 거 같아 참여하게 됐다"라며 "불교계 행사인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 어느 파티보다 더 재밌고 신난다. 특히 새롭게 편곡한 반야심경이 독특하다"고 말했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불교계

에서 젊은 불자들이와 스님들이 모여 클럽에서 파티를 연다는 발상 자체가 소극한 일이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은 관 무용단 이영빈 단장은 "처음 이 파티를 기획할 때 걱정이 앞섰다. 혹여 불교계에서 이런 행사에 대해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을 까 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하지만 오히려 혜총 스님, 진명 스님 등 많은 스님들께서 응원해 주셨다. 스님들은 각자의 근기에 맞게 부처님법을 알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해주셨다"며 "만일 스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번 행사는 무산됐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빈 단장은 "생각 외로 젊은 불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이 불자라고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불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힘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파티를 연 취지를 밝혔다.

이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불자들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젊은 불자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뜻을 내비쳤다.

행사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열광적이 파티현장이 돼 갔다. 특히 MC 스나이퍼 특별출연에 사람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불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신나게 춤추며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데에는 클럽 사장인 최원준 씨의 역할이 컸다.

최원준 씨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자신의 클럽을 무료로 제공했다. 최 씨는 "우선 내가 불자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관심이 갔다. 많은 파티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불교 파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108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사람들이 클럽이라는 장소를 문란하고 퇴폐적인 공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클럽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

의 장소다. 앞으로 불교계에 파티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클럽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108회 조민진 총괄위원장은 "이번 파티의 컨셉을 잡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러기 위해선 파티가 제격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식으로 불교를 보여줄 지가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토로했다.

조민진 씨는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2012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의 모든 젊은 불자들이 모일 수 있는 파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신교에서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흥겹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오신날에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며 "앞으로 불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영108회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케이크 커팅을 하는 모습.



영108회 회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총정대행 :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